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진로 직업 체험 학습장 인기

석곡중 학생 및 관계자 20명 참여

농촌지도공무원 진로 소개 등 호응

곡성군농업기술센터가 자유학기제 진로직업 체험학습장으로 운영되면서 지난 21일 석곡중학교 학생 및 관계자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촌지도 공무원에 대한 진로 소개와 주요업무, 시설 등을 안내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곡성군에서 추진하는 자연순환생명 농업과 지역 특화작목 등 주요업무

소개하고 종합검정실과 미생물 배양실, 농기계임대사업장 등 과학영농시설을 둘러보며 시설별 기능과 역할을 안내하는 등 단순히 이론적 설명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특히 곡성을 신월리에 위치한 과학

영농실증시험포에서는 블루베리와 딸기 등 품종별 시험재배 현장과 스마트농업 교육장, 치유농업 텃밭정원 등 농업분야 신기술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까지 둘러보며 농업분야 진로의 다양성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한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곡성·양해영기자



담양군, 한국도로공사와 유휴부지 활용 업무협약

담양군은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관내 유휴부지에 평화에솔공원, 생활체육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앞으로 담양군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지역사회, 지역경제에 필요한 각종 공익사업 추진에 힘을 합쳐 지역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화순군, 무등산 '국립공원 확대 지정 반대' 서명운동 전개

동구리 만연산·수만리 일대 국유림·공유림 약 100ha 포함

화순군은 16일부터 28일까지 무등산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평가 공람 내용에는 동구리 만연산, 수만리 일대 국유림, 공유림 약 100ha에 이르는 추가 지정안이 포함됐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에 대해 화순군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군은 환경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전라남도 등 관계 기관에 반대 입장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군은 전 주민 반대 서명운동 전개와 함께 국립공원 확대 지정 반대 주민대표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무등산 국립공원 타당성 평가 확대 지정안의 무등산 국립공원 동부 관할 편입 면적이 전체 1.322km² 중 1.143k



m²로 86.4%에 해당되고 대부분이 화순군에 속해 있다.

현재 지정된 경계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가 아닌 추가 지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화순군의 입장이다.

화순·박순철기자

특히, 확대 지정안에 포함된 동구리 만연산, 수만리 지역은 많은 주민과 방문객이 찾는 화순의 주요 휴양, 관광지로 공익적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국립공원 추가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환경 보전과 개발 제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난개발 우려도 없는 지역이다.

군은 11월 4일 열린 예정인 '공원계 획변경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에서 무등산 국립공원 확대 지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주민협의회와 함께 계속해서 반대 운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최종안에 화순군의 반대 의견이 관철되도록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숙원사업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청신호

국무조정실 주관 사업 선정...국비 79억원 확보 쾌거

나주시가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숙원사업인 '생활SOC복합센터' 건립에 속도를 낸다.

나주시는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빛가람 혁신도시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79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로 보육·복지·의료·문화·체육·공원 등 시민의 일상적 편익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각종 시설을 지칭한다.

생활SOC복합화사업은 이러한 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형태의 사업을 의미한다. 나주시는 사업 선정에 힘입어 국비 포함 총 158억원을 투입, 빛가람동383(LH2단지아파트 옆) 사유지

1,325㎡(연면적 6,300㎡)에 오는 2023년까지 어린이(가족)특화 '생활SOC복합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총5층(지상4층·지하1층) 규모로 신선한 산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먹거리 상생 푸드마켓'(1층)을 비롯해 '어린이테마도서관', '육아지원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농산물체협장' 등이 건물 2-4층에 들어선다.

센터 건립은 아동 보육에 필요한 문화·체험커뮤니티 시설 부재로 고민해 왔던 혁신도시 젊은 부모들에게 아동 보육 편익을 더해주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전체인구 대비 12세 이하 아동은 22.7%로 전국평균 11%의 2배 수준이다.

여기에 30세부터 44세 부모 거주 비율은 전국평균(21%)을 웃도는 전체 33.7%에 달한다.

기동취재본부



프리저브드 플라워 강좌 호응 속 '성료' 곡성군 행복학습센터

곡성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하나인 프리저브드 플라워 강좌가 참여자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프리저브드 플라워(preserved flower)'를 직역하면 '보존된 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 생화를 약품처리해 4개월 시들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 조화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생화의 아름다움을 오랜 기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 학습자들은 꽃을 보존하기 위한 용액 사용 이론 및 실습, 판매상품 만들어 보기 등 다양한 과정을 경험했다.

한편 곡성군은 전라남도로부터 평생학습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특성과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곡성·양해영기자

구례군, 오는 28일부터 '구례 감 직거래 장터' 운영

5일시장서 내달 18일까지

구례군은 맛과 품질이 뛰어난 '구례 감'(단감, 대봉)의 집중 출하 시기에 맞춰 오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10월 28일, 11월 3·8·13·18일) 구례5일시장에서 '구례 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례 감'은 지리산과 섬진강의

천혜 자연환경과 낮고 밤의 큰 일교차로 착색이 좋고 당도가 매우 높으며 토질이 비옥하여 과육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뛰어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올해 여섯 번째로 열리는 '구례 감 직거래 장터'는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5일시장 신규조성 주차장으로 부지를 옮겨 운영하며, 총 90여 농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생산 농가의 소득 창출은 물론 소비자에게는 맛 좋은 구례 감을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거 운영하며, 총 90여 농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생산 농가의 소득 창출은 물론 소비자에게는 맛 좋은 구례 감을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